

스마트라이프란?

• 임병림(미래로시스템 Software Engineering Team)

I. 서론

‘내 옆에 나의 이상형이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그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게 된다.’라고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님이 CEO 특강에서 말했다. 가까운 미래에 나의 모바일이 스쳐 지나간 나의 이상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가능할 것이다.⁽¹⁾

IT의 획기적인 발전은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심지어 ‘아이는 ???가 키운다.’는 말도 생겨났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옮겨지면서 더 발달하게 되었고 그 중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 보기는 쉽지 않다. 스마트폰을 안 쓰면 여러 메시징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쓸 수 없어 소외현상을 겪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요금도 비싸더라도 소통과 편리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 1억 700만대로 휴대폰의 약 1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1년 말 2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핸드폰 사용자중 2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2013년에는 39%, 2020년에는 5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¹⁾ 이것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실감케 한다. 참여의 아키텍처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네트워크 이펙트이다.

과거 휴대폰이 음성통화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편익을 주는 하나의 종합문화 서비스 플

랫폼이 되어 스마트폰 하나로 정보습득,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 활용 등을 하는 스마트 라이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흔히들 ‘친구, 애인과 같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과거에는 통신이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서 일대일의 의사 교환을 하는 수단이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검색, SNS 등의 활성화로 일대다의 정보공유, 의사전달들이 가능해지고 속도도 증가했다. 즉, 1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을 포괄하는 소셜 네트워킹을 모바일과 접목시킨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화(mobile social networking)인 것이다. 그리고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등 4가지 SNS)시대는 스마트폰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²⁾

스마트폰으로 인해 프로슈머(파워블로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가 새로운 대중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SNS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II. 본론

우리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스마트가 붙으면 소위 잘나가는 기기로 생각될 정도로 스마트라는 단어는 친숙하면서도 필수적인 용어가 되었다.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를 두산 동아에서 찾아보았다.

Smart (스마트)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하여 말할 때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특히 지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능화된 또는 지능형(intelligent)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스마트TV와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라이프 등 수많은 용어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 모든 용어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작성, 분석,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은 모바일의 발전을 가져왔다. 스마트의 기술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판단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인식 기술, SNS나 메신저와 같이 전송되는 정보를 알람 형태로 제공하는 푸시 기능, 'Augmented Reality'로 real-world 와 virtual reality 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세계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람이나 그림, 건물 등을 비추면 관련 이미지가 3D로 겹쳐 보이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의 시스템인 증강현실이 있다.⁽¹⁾⁽²⁾

IT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을 비롯하여 모바일, 방송, 의료, 가전, 자동차 등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스마트라이프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스마트라이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는 Mobile Convergence다.⁽²⁾ 스마트라이프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접목시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기술변화가 산업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진화를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2005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태그(RFID)칩을 내장해 위치를 확인하고 바이오센서 등을 통해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앱스토어를 활용한 스마트폰이 등장하였고 스마트폰 OS가 TV로 전이되게 되었다. 스마트 기기 대중화, 3G 네트워크 무제한 요금제, 저렴한 클라우드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주목하게 되었다. '다른 스크린', '두개의 스크린' 형태의 TV가 나오고 리모컨은 스마트폰이 대신한다. 방송정보 찾기, 스마트검색, 소셜네트워크, 웹브라우저 등의 기능을 가진 스마트TV가 만들어져 플래시

가 지원되는 웹서핑, 그리고 다양한 플래시 앱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N스크린 기반의 컨버전스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TV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멀티 플랫폼 전략과 다양한 미디어 간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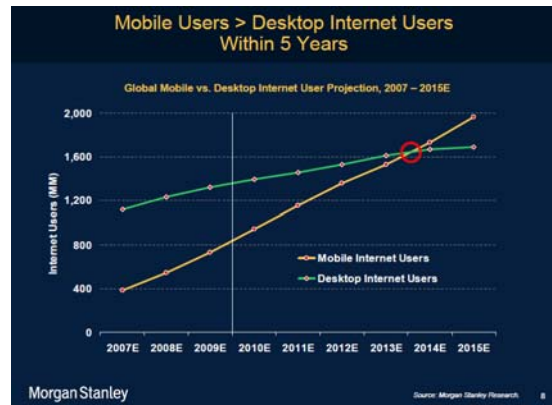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보고 사진 동영상을 YouTube에 올리는 스마트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성시대가 왔다. 스마트한 모바일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쇼핑은 2년 내 1200%의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라이프는 일상생활과 더불어 업무영역인 스마트워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라이프, 스마트 워크가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것은 대표적인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반 환경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설문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25%는 매일 90분 이상을 통근시간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이며 2시간 이상인 직장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고 한다.⁽³⁾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0년 조사한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77.0%)에서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루 평균 약 1시간 인터넷 이용, 모바일앱 평균 23.1개 설치, 9.1개 이용 /유료 모바일앱 월평균 10,000원 이상 지출(약 30%)⁽⁴⁾



위 조사결과에서 “하루평균 약 1시간 인터넷 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접

근이 사무실이나 자택에 있는 데스크탑PC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이동 중이나 외출 중에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한 리서치에 의하면 2014년이면 모바일 인터넷 접근이 더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단순 시간계산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스마트워크는 원격지에서의 사내업무 처리와 모바일오피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 등을 포괄한다. 과거 전화와 팩스를 주로 써온 시절부터 데스크톱이 기업 업무환경의 중심에 놓이는 동안에도 존재했던 개념이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가상데스크톱환경(VDI) 등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당연히 스마트워크를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가상화 등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첨단 기술이 밑바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15년까지 공무원과 직장인 등 30%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올 초 행정안전부는 올해 수도권 등에 10개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50개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⁶⁾

클라우드(Cloud)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하늘 위 구름 저편’에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으로 분산된 거대한 병렬 컴퓨터가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컴퓨터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클라우드는 Interop 2011, 가트너 심포지엄 등 세계 주요 IT 엑스포에서 2012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관련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다양한 태블릿 PC출시로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새로운 업무환경 트렌드로 급부상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⁷⁾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은 필요한 문서나 동영상, 음악파일을 꺼내 쓰게 되며, 우리는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된다. 그 기기는 PC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전산실, 프로젝트 룸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루의 일상을 대상으로 가상의 스마트라이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

고자 한다. 아마도 스마트라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보다 이렇게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날씨, 뉴스속보,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린 자신의 글에 어떤 댓글이 올라와 있는지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한다. 출근시간에는 대중교통정보를 확인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가까운 스마트워크 센터를 찾아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듯 자기 업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회사에 직접 출근할 필요도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사용할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가까운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간단한 업무회의 등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인터넷의 화상미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동료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맛 집 서비스, 위치서비스 등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한 IT기기를 사용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향후 스마트라이프의 발전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전반을 파고들어 개인에게는 편리한 스마트라이프를, 기업에게는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IT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되는 보안문제이다. 최근에 여러 대기업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개인정보의 보안 문제로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상의 저장매체에 저장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문제로 지금도 메일이나 인터넷게정 등이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어떤 대처도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확실한 모바일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항상 먼저 고민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DMB를 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식당에서 밥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이나 강의 시간,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통 주로 사용하는 앱은 메시징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검색, 교통 검색, 웹툰이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앱 활용능력과 스마트라이프를 스마트하게 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III. 결론

스마트라이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할 것이며 가속화는 점점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SF 영화에서 보았음직한 기술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고 있다. IT기기와 대화하고, 모든 생활과 필요한 기기들은 사람과 빠르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점점 진화될 것이다. 과거엔 나 혼자만의 정보였지만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 스마트라이프를 통해 전보다 더 열린 토론문화가 형성되어 간다. 어디까지 진화될 것인가는 상상력이 뛰어난 SF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이 디지털라이프 시대를 연 것처럼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혁명은 스마트라이프 시대를 열었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 (1) [웹사이트]<http://www.samsungtomorrow.com/642>
- (2) [웹사이트]<http://aqua8786.blog.me/90129329595>
- (3) [웹사이트]
http://iwwc.or.kr/bbs/board.php?bo_table=bbs_0702&wr_id=1699&page=0&page=0
- (4) [웹사이트]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sId=7&itemId=735&pageIndex=1>
- (5) [웹사이트]<http://www.changeon.org/12317>
- (6) [웹사이트]<http://www.bloter.net/archives/83483>
- (7)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hoon0802?Redirect=Log&logNo=143287362>

저자소개



임 병 림

1994~1999: 기아특수장
정보시스템실 CIM구축.
1999~현 재: (주)미래로시스템
SE팀 팀장
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